

이해득실 주판알·눈치보기... “희생없는 상생은 없다”

8개월 헛걸음... 걸도는 광주·전남 상생사업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작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나머지 사업들도 추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4월 초 호남고속철도 개통, 7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식 개관 등 광주·전남 대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딴 판이다.

◇걸도만 상생, 이해득실=양 시도는 민선 6기 화두로 상생을 내세웠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시도의회의와 잇박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상생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보보다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개 협력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마저 잇박자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 나주 소재 빛가람 혁신도시를 오가는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체계가 이원화돼 이용객들이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전 등의 지방세 배분을 놓고도 광주시와 나주 시간 이권을 보려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양 시·도는 한전이 500개 기업 유치를 발표한 이후 제각각 기업 유치 전략을 짜는 등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자칫 양 시·도간 과열 경쟁으로 입주 업체들만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광주·전남 출신 학생을 위한 제2남도학숙 건립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미지수다. 시·도는 오는 201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의뢰했지만,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대중교통·지방세 배분 마찰

손 놓은 무안공항 대책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올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시·도가 의회 설득 나서야

최소 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건립 비용이 걸림돌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도회의의 협력도 장담할 수 없다. 양 시도의 재정 규모가 다른 만큼 각각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지도 논쟁거리다.

◇서로 눈치...시간 허비=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은 일시 정지 상태다. 양 시·도는 민선 6기 초반 광주 군 공항과 무안공항을 묶는 발언을 했다가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광주공항과 연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단순히 무안공항에 전세기를 유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공항의 상황은 심각하다. 광주공항은 오는 4월 KTX개통에 따라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세기만 몇대 오가는 게 전부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과 묶어 양 시·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항대책을 찾아내야 하지만, 양 시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시·도가 공항 상생 대책에 손을 놓고

■ 상생협력 일정

| | |
|-----------|-------------------------------|
| 2014.5.25 | 윤장현·이낙연 후보, 민선 6기 시·도 공동정책 협약 |
| 7.1 | 민선 6기 출범 |
| 7.28 | 이 지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강조 |
| 9.17 | 광주·전남 상생 실무회의 개최 |
| 10.1 |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출범 |
| 10.5 | 광주·전남·전북, 호남권정책협의회 복원 |
| 2015.2.2 | 시·도의회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 상정 불가 결정 |
| 2.5 | 시·도의회, 대구·경북 방문 |
| 3.3 | 시·도의회 통합 관련 공청회 개최 |
| 3.5 | 상생발전위 실무위 회의 |
| 3.23 | 상생발전위 개최 예정 |

있는 사이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시 무안 국제공항의 위상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도 시도의회의 발목에 잡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개월째 원장이 공백 상태인 광주발전연구원의 내부 분위기가 연구 추진 실책 등이 엉망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양 시·도지사가 직접 의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하는데, 담당 부서만 질책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마저 높아지고 있다.

광주대 노경수 교수는 “연구원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특수성이나 정책 목표가 달라 효율성 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양 시·도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기라는 점에서 시·도지사의 상생에 대한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종 문화체육부 2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5일 광주여자대학교를 방문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다목적체육관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U대회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 “전방위 홍보 국민 관심도 높일 것” “인천~광주 KTX 1일 6회 증편 국토부와 긍정 협의”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요건으로 꼽히고 있는 북한 선수단 참가에 정신호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대회 지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U대회 지원 전담팀(TF팀) 1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광주U대회 조직위로부터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관문점 경유 성화봉송 등의 건의를 받았다”며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팀 참

가를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구한 데 대해 고위당국자의 반응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동안 UN과 FISU,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이 공동으로 남북 공동개최 등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차관은 또 “이날 회의는 조직위에 서 준비한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이며 앞으로 범정부 협업으로 매달 한차례 이상 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운영면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으나 관광과 숙박분야가 다소 미진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국민의 관심이 높

고 홍보도 미흡한 것 같다. 국내 홍보는 티켓판매와 연계하고 대국민 홍보 등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 1일 2편인 인천-광주 간 KTX의 6회 증편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증차문제를 협의 중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대회 참가선수단과 임원들이 개최지인 광주를 오가는 교통문제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북한팀 참가, 판문점 성화봉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한 만큼 후속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대회 홍보와 관광, 숙박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폐달 났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마감 시한이 임박해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여당이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동을 걸 태세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한 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인제대 최고위원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월 국회가 김영란법 국회였다면,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여부 가 초점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

與 “4월말, 5월초에 처리”

특위 오늘 두번째 공청회

새정치 자체 개혁안 마련

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연금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 차원의 힘이 실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 공무

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과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도 전날 연금 기금의 재정 추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설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선 야당도 어느 정도 구체화한 자체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공무원노조 등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야당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